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성합성가죽공장과 백두산건축연구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성합성가죽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평성합성가죽공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깨끗하고 번듯하게 개건공사를 정말 잘하였다 고, 결만 보고서도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공장을 찾으시여 현대화파업을 제시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려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결사관철의 정신을 잘 알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현지지도표식비를 보시고 새로 꾸린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평성합성가죽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문화를 비롯한 귀중한 사적자료들을 주의깊게 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각별한 사랑속에 이 공장은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는 나라의 보배공장으로 장성강화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문화들을 밝고 정중히 모시였다고 하시면서 혁명사적교양실을 통한 교양사업을 잘하여 공장로동계급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깊이 관심하시고 중시하신 공장에서 일한다는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살며 투쟁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부직포 생산공정, 건식합성가죽생산공정, 습식합성가죽생산공정, 가방생산공정, 과학기술보급실을 비롯한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 및 관리운영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마련해주신 공장의 물질기술적도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이 깃들어있는 현대적인 부직포생산 설비들과 습식합성가죽생산설비들을 눈

동자와 같이 애호관리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낡은 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개작하여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도 잘하고 있다고 하시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김과 구부림세기 등 물리적성질에 있어서나 질감에 있어서 천연가죽에 못지 않은 질좋은 합성가죽을 생산하기 위해 창조적지혜를 바쳐가고 있으며 인민들속에서 수요가 높은 여러가지 가방들을 만들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평성합성가죽공장이 맡고있는 임무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 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원료, 자재의 국산화비중을 최대한 높일데 대한 문제,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다색화, 다양화된 세계적수준의 합성가죽을 더 많이 생산하는데 대한 문제, 생산과 경영활동의 통합생산체계를 높은 수준에서 구축하며 생산공정의 자동화, 무인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문제,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실속있게 하며 종업원들의 노동생활조건과 후방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데 대한 문제 등 공장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되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평성합성가죽공장이 합성가죽에 대한 전국적인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는 능력이 큰 공장으로 전변된것만큼 생산을 정상화하고 생산량을 끊임없이 늘릴수 있도록 원료, 자재를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평성합성가죽공장을 만족하게 돌아보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현대적으로 전변된 공장을 찾고보니 기쁨도 크지만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 보여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으로 하여 마음이 아파온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평성합성가죽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질좋은 합성가죽을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공장에 어려있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전설같은 인민사랑을 길이 빛내

여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백두산건축연구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 혁명사적물보존실,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백두산건축연구원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문화들을 깊은 감회속에 바라보시면서 귀중한 사적물을마다에는 주체적건축발전을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사가 응축되어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한 령도밑에 백두산건축연구원은 당에서 맡겨주는 그 어떤 대상설계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고 건축창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도 성파적으로 해결하는 관록있는 건축창작연구집단으로 자라났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천리혜안의 예지로 백두산건축연구원과 같은 건축창작연구기지들을 품들여 꾸려주시고 주체건축의 발전방향을 휘황히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를 떠나 오늘 이 땅에서 펼쳐지고있는 건설의 최전성기, 대번영기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백두산건축연구원의 일군들과 설계가, 건축가, 연구사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자욱이 새겨져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크나큰 궁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살며 투쟁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건축과학기술성과전시장, 건축설계연구실, 정보자료연구실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연구원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백두산건축연구원의 일군들과 설계가, 건축가, 연구사들이 우리 당의 주체적건축미학사상과 건설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로동당시대와 더불어 길이 빛날 건축물, 주체성, 민족성, 독창성, 현대성이 철저히 구

현된 건축물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건축은 고도의 예술인 동시에 나라와 민족의 문명수준과 국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이라고 하시면서 설계가, 건축가들은 사회주의 내 조국의 휘황한 래일을 그리며 가꾸는 미술가, 원예사라는 숭고한 자각을 안고 당의 건설구상과 인민들의 리상을 반영한 설계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설계가, 건축가, 연구사들은 건축설계에서의 류사성과 반복을 철저히 배격하고 건강건물, 록색건물, 령에네르기, 령탄소건물, 다기능화된 건물 등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일떠세우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백두산건축연구원에서 마감재의 국산화비중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사업, 건재품의 다양화, 다종화, 다색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 건축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사업, 설계가, 건축가들의 창작기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 세계건축자료들을 더 많이 구축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백두산건축연구원의 설계수단들을 더욱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설계의 과학성, 정확성, 신속성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도록 당에서 최신형 컴퓨터를 비롯한 현대적설계수단들을 보내주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백두산건축연구원을 돌아보면서 설계가, 건축가, 연구사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많은 일을 했다는것을 더 잘 알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지난 기간 당의 건축미학사상을 구현하여 국보적가치를 가지는 수많은 건축명작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창작설계한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백두산건축연구원에 대한 당의 기대는 참으로 크다라고 하시면서 일군들과 설계가, 건축가, 연구사들이 자기들앞에 맡겨진 무겁고도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 백두의 선군령장을 모시여

오늘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선군조선의 존엄과 강대성에 대한 무한한 궁지와 자부심에 넘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높이 모신 4돐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다.

주체 101(2012)년 7월 17일 경애하는 원수님께 공화국 원수 칭호를 수여해드린 것은 위대한 선군령장에 대한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의 다함없는 신뢰와 절대적인 지지의 분출이었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획기적전환의 히정표를 아로새긴 혁사적 사변이였다.

일찌기 총대와 인연을 맺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의 선군위업을 계승완성하는 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시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한 군력강화를 위하여 선군장정을 풀임없이 이어오시였다.

주체 101(2012)년 정초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체 105땅크사단을 찾으신데 이어 수많은 인민군부대들을 시찰하시며 병사들과 팔을 끼고 어깨를 걸고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에게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신 원수님이시다.

병사들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고 싶은 것이 자신의 심정이라고 하시며 전선시찰의 길에서 군인들과 뜨거운 정을 나누어오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백두산악 같은 신념과 의지, 투철한 반제자주적립장은 최대열점지역인 장재도와 무도, 월내도를 비롯한 최전연초소들에도 새겨져 있고 각 군종, 병종들의 화력타격훈련들에도 어려있다.

백두산형의 공격기질과 뛰어난 령군술, 무비의 담력과



환호하는 인민군장병들에게 답례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드센 배짱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적대세력들의 제재와 압살, 군사적위협소동을 단호히 제압하시며 공화국의 군력을 최상최대로 강화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백두산악 같은 신념과 의지, 투철한 반제자주적립장은 최대열점지역인 장재도와 무도, 월내도를 비롯한 최전연초소들에도 새겨져 있고 각 군종, 병종들의 화력타격훈련들에도 어려있다.

제3차 지하핵시험과 첫 수소탄시험에서의 성공,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발사시험과 지상대지상증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시험발사의 대성공, 이것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탁월한 로선을 제시하시고 국방공업부문에 대한 쉬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와 헌신의 로고가 안아온 혁사의 기적이며 백두산대국의 강대성

에 대한 일대 시위이다. 지금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은 공포와 전률에 휩싸여 있으며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필승의 신심과 랙판에 넘쳐있다. 선군령장의 탁월한 령도의 손길에 의해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자라난 인민군대의 위력을 당할자는 이 세상에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주요연구들을 종횡무진하시며 새로운 시대정

신, 조선속도창조를 위한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전투에서 현명하게 이끌고계신다. 인민군대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지니고 총공격전의 선구자, 기수가 되여 시대적모범을 창조해나가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련된 령도는 건설의 대번영기, 황금해의 새 혁사가 펼쳐지고 온 나라에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한 근본원천이였다.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인 산림복구전투의 포성이 울리고 10년이 아니라 1년이면 장산이 변하고 인민들의 아름다운 꿈과 이상이 현실로 꽂혀나는 천지개벽, 천도개벽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가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마식령스키장과 미림승마구락부, 미래과학자거리와 과학기술전당, 육아원과 애육원을 비롯한 기념비적건축물들이 일떠서고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밝은 전망이 열리고 있으며 새 세기 산업혁명이 힘 있게 추진되는 속에 최첨단돌파의 눈부신 기적들이 련이어 창조되고 보건과 체육 등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는 것이 공화국의 참모습이다.

강력한 군사강국, 핵강국의 지위에 오른 공화국은 오늘 국제무대에서 자기의 정치적자주권을 보다 당당히 행사하면서 존엄과 국력을 떨치고 있다.

참으로 지난 4년간의 날과 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사회주의수호전파강국건설에서 위대한 승리와 세기적변혁이 이룩되고 현시대 정치거장으로서의 김정은원수님의 절대적권위와 위인상이 온 세상에 힘있게 파시된 궁지높은 나날들이였다.

위대한 선군령장이 신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용기백배,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공화국의 앞길에는 더욱 큰 승리와 영광이 있을 것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니다.

나는 그때 애어린 전사의 말을 듣고 인민군군인들이 간직한 필승의 신념을 잘 알게 되었으며 우리는 전쟁에서 꼭 이긴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필승의 신념은 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우리 인민군대의 힘은 원자탄이나 그 어떤 무기로도 당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래일도 이 단결의 힘으로 전진하고 승리를 할 것입니다.»

원자탄이나 그 어떤 무기로도 당할수 없는 힘, 최고사령관과 전사들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단결의 힘으로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침략자 미국의 거만한 쿠데를 꺾고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안아왔던것이다.

본사기자

## 위례한 인민의 모습

## 원자탄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단결의 힘

동부와 서부에 총력량을 투입하였다.

(말그대로 총공세이다. 과연 맥아더의 호언장담을 타파할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데 문득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인민군인들의 행군대오가 보였다. 캄캄한 밤인데도 질서정연하게 대렬을 짓고 씩씩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군인들을 만나보자고 하시면서 차에서 내리시였다. 그이께서는 군인들에게 다가가시여 어디에서부터 오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옛, 경상북도 안동에서부터 2 000리길을 행군해오고 있습니다.»

어둠속에서 한 병사의 애된 목소리가 울렸다.

나이는 몇 살인가, 고향은 어딘가 다정히 물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병사의 어깨우의 카빈총을 보시며 어디서 났는가고 물으시였다.

«후퇴과정에 적들에게서 빼앗은겁니다.»

«우린 적들의 무기와 탄약을 빼앗아 보충하군 했습니다.»

«신발이 해지면 짚신을 삼아신고 맞다드는 적들과 싸우면서 후퇴했습니다.»

군인들은 저저마다 대답을 올렸다. 그들은 앞에 계시는 분이

김일성장군님이시라는 것을 짐작도 못하고 있었다. 수령님께서는 어둠속에서 군인들의 얼굴을 더듬어보시며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인가고 또다시 물으시였다.

«최고사령부로 갑니다!»  
«새로운 전투명령을 받으려 갑니다.»

최고사령부 명령만 받으면 적들과 싸워 승리할수 있는가고 하시는 그이의 물으심에 군인들은 《미국놈들을 소멸하고 꼭 승리할 자신이 있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당장이라도 전선으로 달려가겠습니다.》라고 씩씩하게 대답을 떴다.

뜨거운 눈길로 군인들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무들의 기세도 좋고 신심도 좋다, 조선청년들은 죽지 않았다, 이런 청년들을 가지고 있는 조선인민은 반드시 승리한다,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깊이 간직하고 당과 정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힘을 꺾을자는 이 세상에 없다고 교시하시였다.

대오에서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았다. 모두가 그이의 거룩한 모습을 넋없이 우러르기만 하였다.

다시금 그이의 우렁우렁한 음성이 고요를 흔들었다.

동무들이 적들의 무기와 탄약을 빼앗아 보충하고 신발이 해지면 짚신을 삼아신고 맞다드는 적들과 싸우면서 후퇴하였다. 난판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는 투쟁정신만 있으면 그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 도 굴함없이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다.

지난날 항일유격대원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조건에서도 현대적무기로 무장한 악독한 일제와 싸워 승리할수 있은것은 그들이 난판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는 강의한 투쟁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캄캄한 밤이여서 그들은 내가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인민군련대장에게 그때 일을 추억하시며 이렇게 교시하였다.

«내가 얼마전에 평안북도 벽동근방에서 안동에서부터 후퇴하여오는 부대군인들을 만나보았는데 어디로 가는 길인가고 물었더니 한 어린 전사가 최고사령부를 찾아가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때문인가고 다시 물으니 최고사령관동지의 새 전투명령을 받으려 간다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최고사령관이라는것을 물랐습



지금 행성의 현실은 복잡다단하다.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 쇠퇴로 물살을 끌고 있는 나라도 있고 폐난민 사태로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불안과 우려의 한숨을 내쉬고 도처에서는 여전히 분쟁의 화염이 꺼질 줄 모르고 있다.

인류는 이 모든 것을 타개할 방략과 출로를 위해 암중모색하고 있지만 민족의 전도와 나라의 발전을 밝혀주고 이끌어 줄 령도자도 부재하다.

현재와 미래에 대한 질은 우려가 침식해가는 이 지구 상에서 가장 짚으시고 매력적인 령도자가 세인의 각광을 받고 계시니 그분은 조선의 김정은 령도자이시다.

인민들의 흠토와 숭배는 말 할 것도 없고 지경을 넘어 세인의 극찬을 받고 지어는 적대국에서 조차 명인으로 추앙받으시는 김정은 령도자이시다.

내가 북을 방문하여 만나본 주민들에 의하면 김정은 령도자의 존함은 그들의 일상 생활에서 가장 친근한 부름이었고 매우 그자체였다.

실지 객관의 눈으로 투시한 북의 령도자와 북인민들과의 관계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사랑과 정의 양힘이었고 존대와 중앙으로 이어진 불변의 관계였다.

김정은 령도자는 인민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고 인민은 또 김정은 령도자를 끌어들이며 사랑하고 사랑한다.

북의 표현을 빙다면 이런 혼연일체를 지구상 그 어느 나라에서 실현한 적 있었는가.

자고로 통치자들은 『덕치』나 『인덕』을 표방해왔고 민족이라는 거울에 자기의 모습이 더없이 인자하고 너그럽게 비치기를 바랬다. 그러나 『덕치』나 『인덕』은 민족의 환심을 사기 위한 『마

# 매혹의 세계, 멋진 정치

술의 낚시》에 불과했고 『인자함』과 『너그러움』도 역시 위선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민족과 나눌 수 있는 심장의 언어가 없었고 진심이라는 뜨거운 것이 없었다. 으리으리한 집무실과 요란한 행차, 고급스러운 행장으로 권위를 시위하려 했지만 그것은 훨수 없었다.

하다면 김정은 령도자의 멋은 무엇이겠는가.

부모를 잃은 원아들에게 훌륭한 보금자리를 안겨주고 그 훌륭한 궁전에서 원아들이 세상에 부림없이 자라난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이께서 터놓으셨다는 마음속 진정이 물음에 대답을 주고 있다.

정말 이런 멋에, 이렇게 순간에 속이 한번씩 뭉클해오는 행복에 도취되어 보려고 힘들어도 웃으며 투쟁 속에 사는 것 같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 정신을 바탕으로 힘과 용기를 모아 백배하여 일들을 더 잘해 나가자...

김정은 령도자의 멋, 그것은 한마디로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다.

환하게 웃으시는 미소에 반하게 되고 짚음에 넘치신 그 약동함에 마음이 쓸리고 하시는 말씀 마디마다에 저도 모르게 온넋이 끌리게 된다는 것은 북의 인민들의 공통된 심리정서이다.

그 미소에서 인민은 자기들을 위해 또 하나의 행복의 창조물을 안겨준 어버이의 기쁨을 보고 그분의 약동에 넘치는 행보에서 자기들의 더 좋을 래일을 확신하며 하시는 말씀마다에 자기들을 위한 애민의 뜻으로 꽉 차있음을 느낀다.

사랑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거기에 바치는 희생이 있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이 있으며 격차가 없는 하나라는 세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 열화와 같은 사랑을 최고의 경지에서 지니신 김정은 령도자이시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발이 닳도록 인민을 위해 뛰고 또 뛰여야 한다.』

『인민을 하늘처럼 숭배하라.』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참으로 인민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시였기에 그이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렇듯 멋진 금언들인 것이다.

나라는 정사를 펼쳐가는 령도자를 펼는 법이다.

김정은 령도자가 멋진 분이시니 북도 세상이 놀라와하고 감탄하는 인민천국의 멋진 별세상이다.

세상의 많은 부유국과 경제 대국들에도 어쩔 수 없는 빈궁과 실업의 그늘이 있다. 그 숙명의 그들에 묻혀 생을 비판한 많은 이들이 지금도 헤여나올 수 없는 절망과 타락의 늪을 방황하고 있다.

그러나 북은 다르다. 이곳을 방문한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놀라듯이 비약으로 과학과 문명의 첨단세계를 이루어내는 모든 황홀한 전변은 앞면을 봐도 뒤면을 봐도 타락과 비판의 그늘이 전혀 없다.

해빛처럼 밝은 세상, 그들이 없는 행복의 무릉도원을 김정은 령도자께서 가꾸고 계신다. 이 멋진 세상을 빛내이시는 령도자를 우리로 찬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남을 위해 자기를 바치고 눈앞의 고난과 시련도 맞받아 훑고나가는 강의한 의지를 지닌 인민은 김정은 령도자의 지도력과 인력이 높은 것이다.

이것이 북의 적대세력에겐 참기 어려운 전통이다. 그래서 북의 실상을 가리우고 그 위상을 깨어내리려고 많은 날조와 기만을 산생시키며 류포시 키고 있다.

그러나 날조와 기만에 속아 진실이 매장된 적은 역사에 없다. 얼마전 외국의 한 녀기자가 미국태평양공군기지에 들어가 미국군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조선체류파정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청중의 한 사람은 서방언론들은 자신들의 가치관으로 남을 가늠하고 서방의 『민주』와 『인권』, 『도덕』의 자대로 샌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언론들 자신도 선택성보도를 하면서 『악마화』의 구치에 이른다. 당신이 보여준 이러한 사실자료들을 우리는 서방언론들에서 본적이 전혀 없다고 하였으며 또 한 로인은 당신의 강의로 하여 나의 시야가 넓어졌다. 보아하니 우리 정부(미국)가 우리를 잘못 세뇌시켰다고 하였다.

북을 방문한 그 언론인의 체험담이나 사진, 동화상자료를 보고도 미국인들이 자신들이 이제껏 잘못 세뇌당하였다 고 진심을 토로하는 정도인데 그들이 실지 북을 방문하여 모든 현실들을 자기 눈으로 볼 때에 과연 심정이 어떠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지난 5월 북에서는 온 세계의 지대한 관심 속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성대하게 열렸고 김정은 령도자께서는 조선 200일 전투의 총진군에서 서 선진영농방법과 기술 승리의 통장훈을 불러 경제 강국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을 적극 도입한 것은 훌륭한 작황을 이루하게 한 중요한 요인이다.

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 되시였다. 그이만을 따르고 받드는 북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의지는 6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도 뚜렷이 표시되었다. 김정은 령도자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던 것이다.

민심은 천심이라 하였다. 이 천심이 떠받든 김정은 령도자 이시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걸출한 령도자이시다.

김정은 령도자께서 지니신 힘, 정의의 힘도 세상에서 최고이시다. 그이는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강대함으로 승리를 떨치시는 필승의 영장이시다. 지금 인류는 이제껏 본적이 없는 힘에 전무후무한 힘, 가장 강대하고 그 어떤 도전과 광풍 속에서도 진함이 없이 더 더욱 용솟음치는 정의의 힘을 북의 김정은 령도자에게 보고 있다. 그분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가장 중요 여기시고 그것을 빛내이고 떨쳐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신다.

세기를 이어 우리 조선민족에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들씌우고 자주의 나라 조선을 시종일관 적대시하며 핵위협 해온 그 횡포한 미국을 지금 어떻게 호되게 다스리고 있는가.

얼마전 이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재미통일학연구소 소장의 글이 실렸는데 그는 글에서 『미국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핵무기를 사용한 1945년에 제1핵시대가 도래하였고 인디아가 5대 핵강국 이외의 나라들 가운데 처음으로 핵시험을 진행한 1974년에 제2핵시대가 도래하였다면 올해 2016년에는 조선이 동방의 핵대국으로 등장함으로써 제3핵시대가 도래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고 지적하였다.

조선이 수소탄을 보유하고 이번에 지상대지 상증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10』 시험발사에서도 크게 성공하여 세계가 법석 끊고 있는데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조선의 핵과 전략적 지위가 달라지고 이제는 미국의 핵위협을 일방적으로 당하던데로부터 거꾸로 미국에 핵위협을 가할 수 있게 되었으니 행성의 엄청난 지각변동이 아닐 수 없다.

이 놀라운 조선의 사변, 행성의 사변을 출중한 령도와 자주적 결단력, 드센 배짱과 담력을으로 이루어 놓으시였으니 경애하는 김정은 령도자이시야 말로 이 세상에 한분밖에 안계시는 불가능을 모르시고 백승만을 떨치시는 희세의 위인, 강대성의 상징이시다.

오늘날 세계는 이 행성을 주도해나가고 온갖 불의를 짓눌러 놓으며 조선을 주축으로 하여 형성되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구도를 뚜렷히 보고 있다. 그 구도의 중심에는 김정은 령도자께서 세계신다.

김정은 령도자에 대한 존경과 신뢰, 흠토와 숭배는 북의 지경을 벗어나 온 세상에 퍼져가고 있다. 이남의 인터넷에도 『솔직히 김정은 위원장이 멋있는 건 사실이지.』, 『이 정도면 김정은 위원장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북전체를 휘여잡는 저 카리스마 (권위).』 그러니까 이제 통일은 문제 없다.』라는 각계의 격동된 심정을 담은 글들이 현속 오르고 있으며 영국 언론 『가디언』은 전지구적인 영향력을 보유한 주요 인물 1위에 김정은 령도자를 선정하였다.

멋진 령도자, 멋진 정치에 대한 지구적인 매혹과 친란의 열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달아오르리라 본다.

재미동포 리정선

## 조선은 날마다 속구친다

### — 려명거리 건설을 보며 —

불쾌의 전통을 다시금 파시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명령을 퍼뚫는 심장으로 받아안은 인민군인들과 돌격대원들이 제정된 기일안에 최상의 질적 수준에서 려명거리를 세상이 보란듯이 일떠세울 결사판철의 의지를 안고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건설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 착공의 첫 삽을 박은 지 3달 남짓한 기간에 22동의 살림집을 완성!

— 3000여 세대의 살림집을 풀조형성!

창전 거리 건설 때 보다 2.3배의 공사 속도가 기록되고 있는 려명거리 건설장에서 현재까지 여러 동의 고층 및 다층 살림집을 조성사가 련이어 결속된 데 이어 55층, 70층짜리 초고

층, 고층 살림집 건설장들에서 40층, 50층 계선을 돌파하였다.

특히 초고층 살림집 건설을 맡은 건설자들은 건설장비와 자재들을 충분히 갖추어놓고 공사장을 힘 있게 내밀어 매일 최고 실적을 내고 있다.

건설초기에 20여 시간만에 한 층씩, 최고 14시간만에 한 층씩 공사를 세워지는 기적이 창조되고 있다.

어제와 오늘, 아침과 저녁만이 아니라 분마다, 시간마다 그 면모가 몰라보게 달라지는 려명거리 건설장이다.

려명거리 건설은 단순한 건설이 아니다.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재압살책 등을 짓부시고 자력 자강으로 부강조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워나가는 선군조선의 불패의 위력에 대한 힘 있는 파시로 되고 있다.

령도자의 부름이라면 한마음 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웃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창조해나가는 것이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투쟁 전통이며 기질이다.

하기에 건설자들은 려명거리를 날로 비약하는

주체적 건축예술의 척도가 응축된 거리, 사회주의 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거리로 기한전에 일떠세우기 위해 불같은 공격전을 벌려 말은 살림집 플조우에 련이어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고 있다.

언제가도 실현될 수 없는 허망한 『북봉피』를 꿈꾸는 미국과 서방의 망상가들의 면상을 보기 좋게 후려갈기며 려명거리 건설장에서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승전포성이 울리고 있다.

온 나라 인민들도 려명거리 건설을 물심 탱연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위원회, 성, 중앙기관들과 도, 시, 군의 수많은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건설기계, 설비, 자재들과 많은 건설 기공구, 로동보호물자, 식료품을 비롯한 후방물자들을 안고 건설장을 찾고 있다.

온 나라 인민의 뜨거운 애국의 마음과 건설자들의 불같은 열의에 빛나려 지금 려명거리 건설장은 날마다 새라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며 물러보게 변모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쑥 올라가며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는 려명거리처럼 조선은 날마다 시간마다 이렇게 솟구치고 비약하고 있다.

황해 남도를 비롯한 많은 도들에서 6월 15일 까지 앞그루작물 생산을 120% 넘쳐 수행하였다.

본사기자 홍범식

200일 전투의 총진군에서 서 선진영농방법과 기술 승리의 통장훈을 불러 경제 강국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을 적극 도입한 것은 훌륭한 작황을 이루하게 한 중요한 요인이다.

농업성에서 평안남도 넝원군 마산협동농장에서 창안된 감자진 싹모재배기술을 전국의 농장들에 보급하는데 이 영농방법을 받아들인 많은 농장들에서 평년에 없는 소출을 내고 많은 로력과 종자를 절약하였다.

선진영농기술은 감자뿐 아니라 밀, 보리재배에서도 적극 도입되었다.

종전에는 밀, 보리과 종을 면적당 종자의 양을 무게에 따라 정하여 시비한데 비해 올해에는 단위면적당 포기수를 계산하여 모를 내는 방법으로 작물재배를 하여 많은 알곡을 걷어들이었다.

특히 밀, 보리 단지 이식재배와 점파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과학적인 소출을 내도록 하였다.

결과 온 나라의 모든 농장들에서 지난 시기에 비해 앞그루작물 생산량을 훨씬 늘리는 놀라운 기록이 창조되었다.

농업성에서는 앞그루작물재배에서 거둔 성과에 기초하여 뒤그루작물재배에서 장마철 피해와 큰 물을 막고 풍년을 안아오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 있다.

본사기자 강류성



#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협력회의 북측준비위원회에서

## 공개편지를 보낸 남조선의 당국, 정당, 단체 및 개별인사들

조국해방 일흔한돐을 맞으며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협력회의 북측준비위원회에서 공개편지를 보낸 남조선의 당국, 정당, 단체 및 개별인사들은 다음과 같다.

### — 당국관계자

리원종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황교안 《국무총리》  
홍용표 통일부 장관  
김형석 통일부 차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리병호 정보원 원장

### — 정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 — 단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학술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지역본부  
(서울본부, 강원본부, 인천본부, 경기본부, 충북본부, 충남본부, 대전본부, 광주본부, 전남본부, 전북본부, 부산본부, 대구경북본부, 울산본부, 경남본부, 제주본부)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한국진보련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통일광장  
전국민주로동조합총련맹 《한국로동조합총련맹》  
전국농민회총련맹 《한국카톨릭농민회》  
농협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협회》  
《한국농업인협회》  
전체 조선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반드시 성사시키자》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협력회의 북측준비위원회에서 조국해방 일흔한돐을 맞으며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대변인 담화 발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대변인이 얼마전 《전체 조선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반드시 성사시키자》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는 8.15를 전후하여 평양이나 개성에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하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지금 남조선당국은 그 무슨 《진정성》이니, 《통

전국교직원로동조합총련맹 《한국교원단체총련합회》  
통일맞이 늦봄 문의 환목사 기념사업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량심수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민족예술인총련합》 (민예총)  
《한국예술인총련합》 (예총)

《한국작가회의》  
《한국독립유공자유족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참여련대  
환경운동련합  
홍사단  
민족민주련사회생자추모단체  
현대회의  
세계평화련합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천태종》  
《대한불교진각종》  
원불교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총련합회》  
《한국교회련합》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성공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련맹》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 주교회의  
천주교녀자수도회 장상련합회  
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련합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평화3000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  
《한국천도교중앙총부》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대종교  
유교성균관  
동학민족통일회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전남도민남부교류협의회  
광주시남부교류협의회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경남통일농업협력회

금강산기업인협의회  
남북리사학자협의회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동북아력사재단  
《한국방송재단》  
《한국신문협회》  
《한국지방신문협회》  
《한국대학언론협회》  
적십자사 종재

— 개별인사  
정세균 《국회》 의장  
박주선 《국회》 부의장  
심재철 《국회》 부의장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 위원회 위원장  
김무성 《국회》 외교통일 위원회 위원  
김도읍 《국회》 외교통일 위원회 위원  
서청원 《국회》 외교통일 위원회 위원  
원유철 《국회》 외교통일 위원회 위원  
윤영석 《국회》 외교통일 위원회 위원  
리주영 《국회》 외교통일 위원회 위원  
정양석 《국회》 외교통일 위원회 위원  
최경환 《국회》 외교통일 위원회 위원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성공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련맹》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 주교회의  
천주교녀자수도회 장상련합회  
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련합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평화3000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  
《한국천도교중앙총부》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대종교  
유교성균관  
동학민족통일회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전남도민남부교류협의회  
광주시남부교류협의회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경남통일농업협력회

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 대책위원회 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 대표  
천정배 국민의당 전 공동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로희찬 정의당 원내대표  
리시종 충청북도 지사  
안희정 충청남도 지사  
송하진 전라북도 지사  
리락연 전라남도 지사  
김관용 경상북도 지사  
홍준표 경상남도 지사  
최문순 남조선강원도 지사  
남경필 경기도 지사  
원희룡 제주도 지사  
리춘희 세종시 시장  
윤장현 광주시 시장  
권영진 대구시 시장  
권선택 대전시 시장  
서병수 부산시 시장  
박원순 서울시 시장  
류정복 인천시 시장  
김기현 울산시 시장  
리희호 김대중 평화센터  
리사장  
김성재 김대중 아까미원장  
리해찬 로무현재단 리사장  
문정인 김대중도서관관장  
권량숙  
리재정 전통일부 장관  
정세현 전통일부 장관  
리종석 전통일부 장관  
림동원 전통일부 장관  
정동영 전통일부 장관  
류호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백락청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명예대표  
김상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명예대표  
오종렬 《한국진보련대》 총회 의장  
로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한상렬 목사  
권락기 통일광장 회장(비전향장기수)  
임방규 통일광장 대표(비전향장기수)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강만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민화협 전 상임의장)  
김민하 세계일보 회장 (페스

코리아 대표)  
문성근 전 민주당 《국회》 의원  
(문의 환목사의 아들)  
권영길 전 국민주로동조합  
총련맹 초대위원장  
리수호 전 국민주로동조합  
총련맹 전 위원장  
단병호 전 국민주로동조합  
총련맹 전 위원장  
리갑용 전 국민주로동조합  
총련맹 전 위원장  
리석행 전 국민주로동조합  
총련맹 전 위원장  
신승철 전 국민주로동조합  
총련맹 전 위원장  
김영훈 전 국민주로동조합  
총련맹 전 위원장  
문진국 《한국로동조합총련맹》 전 위원장  
장석춘 《한국로동조합총련맹》 전 위원장  
강다복 전 국녀성농민회  
총련합 의장  
지은희 《한국녀성단체련합》 전 상임대표  
안김정애 평화를 만드는  
녀성회 상임대표  
리현숙 평화를 만드는  
녀성회 전 상임대표  
임윤옥 《한국녀성로동자회》  
대표  
염윤석 전국대학총학생회 모임  
의장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리장희 《한국외국어  
대학교》 교수  
김영진 민주로점상전국련합  
의장  
양명희 《한국교회련합》  
전 대표회장  
홍정길 남북나눔회 회장  
진요한 조국평화통일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석 새 에덴교회 담임  
목사  
문대꼴 《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 소장  
염수정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추기경  
김희중 천주교 광주대교구  
교구장, 대주교  
최창무 대주교  
문규현 신부  
문정현 신부  
함세웅 신부  
전종훈 신부  
김성곤 아시아종교평화회의  
명예의장  
최근덕 전 유교성균관  
판장  
송기인 신부  
최사목 평화재향군인회  
공동대표

최학래 한겨레통일문화재단  
리사  
신원철 전대협동우회 회장  
정의화 《새 한국의 비전》  
리사장  
정태인 정의구현 정책 단  
단장  
한학자 세계평화련합 총재  
박상권 세계평화련합 사무  
총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김삼열 단군민족평화통일  
협의회 상임공동대표,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유명준 단군민족평화통일협  
의회 상임공동대표,  
전국자연보호련맹  
중앙위원회 총재  
김선적 통일광복민족회의  
의장  
박남수 전 천도교중앙총부  
교령, 《한국종교  
련합》 공동대표  
김자동 립정기념사업회 회장  
김영준 (해문스님) 문화재  
제자리찾기 대표  
리지홍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김삼환 명성교회 담임목사  
장종현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전 회장  
김명혁 《한국복음주의협  
의회》 회장  
양명희 《한국교회련합》  
전 대표회장  
홍정길 남북나눔회 회장  
진요한 조국평화통일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석 새 에덴교회 담임  
목사  
문대꼴 《한국기독교평화  
연구소》 소장  
염수정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추기경  
김희중 천주교 광주대교구  
교구장, 대주교  
최창무 대주교  
문규현 신부  
문정현 신부  
함세웅 신부  
전종훈 신부  
김성곤 아시아종교평화회의  
명예의장  
최근덕 전 유교성균관  
판장  
송기인 신부  
최사목 평화재향군인회  
공동대표

## 전체 조선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반드시 성사시키자

###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대변인 담화 발표

이 현정세의 요구로 보나 우리  
겨레의 통일의지로 보나 가장  
시기적절하고 공명정대한 통일  
애국호소라고 인정하면서 적극  
지지찬동한다고 담화는 지적하였다.

담화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이 열린다면 오늘과 같은  
은 첨예한 동족대결의 극단적  
상태를 일소하고 민족운명개  
척의 전환적국면을 마련해나  
갈수 있는 전설적인 의견들과  
합리적인 방도들이 허심탄회  
하게 논의될것이며 우리 겨레  
의 자주통일운동은 새로운 궤  
도에 들어서게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지금 남조선당국은 그 무슨 《진정성》이니, 《통

가 남조선당국의 태도를 주시  
한다는것을 명심하고 대답하게  
정책전환을 하고 용약 자주통  
일의 길에 들어서야 한다고 펴  
력하였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오늘의 중대국면에서 시대와  
민족앞에 지닌 자신들의 본분  
을 깊이 자각하고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반드시 성사시키  
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  
다고 담화는 호소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성원들은  
8.15를 계기로 민족대회합에  
적극 참가하여 조국의 자주  
적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애국애족투쟁에 몸과 마음  
을 다 바쳐나갈것이라고 담화는  
언명하였다.

담화는 영명하신 백두의 천출위인을 모신 우리 겨레의  
앞길은 휘황찬란하며 통일조국  
의 새 날은 반드시 밝아오고야  
말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 우리 민족의 대단결의지를 보여주게 될 통일대회합

### 재미동포중남부지역련합회 성명 발표

재미동포중남부지역련합회  
가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  
일을 위한 전민족적인 통일대  
회합개최를 환영하여 9일 성명  
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국해방 71돐을 맞  
으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  
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

의 련석회의를 개최할때 대  
한 북의 제안을 가슴벅찬 기  
쁨으로 환영하며 지지한다고  
지적하였다.

온 겨레가 조국통일의 네원  
을 담아 이루어낸 7.4공동성  
명,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 조국통일의 바른 길을 제  
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통일의 길에는 의연히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있다고 성명은  
밝혔다.

이러한 현실에서 통일대회합  
은 미제국주의에 자주적평화통  
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해가는  
우리 민족의 대단결의지를 보  
여주게 될것이라고 성명은 주  
장하였다.

성명은 또한 반통일보수세  
력이 장악한 남측의 망국적지  
배총에도 조국의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해 새 출발을 할 기  
회가 될것이라고 펴력하였다.

재미동포중남부지역련합회  
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모든 노  
력을 다할것이라고 성명은 강  
조하였다.

본사기자

남조선 정보원이 지난 4월에 유인립치하여간 공화국주민들에 대한 신상공개를 계속 거부해나서고 있다.

그런가하면 랍치피해자들을 법정에 출석시켜 만나게 해달라는 남조선민변의 요구도 거부하였다.

립치피해자들의 부모들이 자식들을 직접 만나보도록 할데 대한 공화국의 정당한 요구는 물론 유엔 인권기구의 조사마저 거부하고 있다.

이들이 그 무슨 가족의 『신변위험』을 고려해 심리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는데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공화국의 식당종업원처녀들은 비밀리에 남조선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름과 사진, 가족명단까지 다 공개된 상태이며 그들이 『자진탈북』했다고 떠들어 세상을 들썩하게 했던 남조선정보원이다.

지금 남조선의 항간에서 『좌우간 세상에 내놓고 공개해서는 안될, 아니 공개할수 없는 그 뭔가 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 하는데 정보원이 내놓고 공개할수 없는것이 파연 무엇이겠는가.

제발로 들어갔다면 공개

## 날벼락 맞을 야수들

하겠는데 강제로 유인립치하여 끌고갔으니 그 진상이 밝혀질가봐 세상에 내놓지 못하는것이다. 이것은 세살 난 아이도 알수 있는 명백한 사실이다.

알려진데 의하면 공화국의 처녀들은 남조선으로 끌려간지 90여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조국으로 돌아가겠다며 정보원의 회유와 압력에 완강하게 맞서고 있다고 한다.

어리고 연약하다고 여겼던 그들이 죽어도 부모형제들과 조국을 배반할수 없다고, 자기들은 강제로 남조선에 끌려왔지 절대로 스스로 온것은 아니라고 단식투쟁까지 하며 굶하지 않고있다고 한다. 정보원들이 공화국의 동영상자료까지 가공, 날조해가며 처녀들을 기만하고 유혹하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 있지만 기어이 조국의 품으로 돌아가려는 이들의 의지를 꺾지 못하고 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남조선에서 정보원이라고 하면 모략과 날조의 본거지이다. 남조선신문 『한겨레』가 『탈북자』들의 체

험자료들을 공개한데 의하면

립치된 공화국주민들에 대한 심문과정은 『처음에는 저항하고, 다음 칠 정도로 조사를 받고,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무력해지고, 자백하면 잘 살게 해준다고 회유당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평생 갇혀 살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지고, 결국은 헤위자백에 이르게 된다.』

는 것이다. 현재 남조선에 억류되어있는 공화국주민 김련희녀성도 수많은 『탈북자』들이 조사과정에 무참히 인권침해를 당하고있음에도 『법』도 모르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길이 없어 최고 6개월씩 독감방에 갇혀 온갖 고문과 회유, 압박을 받고있다고 폭로하였다.

남자를 녀자로, 녀자를 남자로 만드는것만 내놓고는 모든것을 다 할수 있다는 정보원이 공화국의 처녀들을 세상이 보지 못하는 외딴 곳에서 어떻게 다루겠는가 하는것은 가히 짐작할만 하다.

하지만 남조선정보원은 공화국의 처녀들을 몰라

말고 부당하게 끌고간 공화국의 처녀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하루빨리 부모들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사랑하는 딸들이 저주로운 남조선사회로 끌려간것만 해도 가슴이疼지만, 귀순을 강요당하는 데 되었다면 부모들의 심정이 파악 어려하겠는가. 만약 그들의 신상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긴다면 공화국인민들이, 아니 온세계의 량심이 이를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다.

본사기자 고영숙

## 유인립치된 공화국녀성공민들의 신상공개를

### 남조선당국에 요구

12일 남조선 『CBS』 방송에 의하면 국제대사령이 성명을 발표하여 집단유인립치된 우리 공화국녀성공민들의 신상을 공개할것을 남조선『정부』에 요구하였다.

성명은 북의 녀성들에

본사기자



## 국제법으로 틀여다본 랑치범죄

지난 4월 남조선의 정보원은 해외에서 일을 하던 공화국공민들을 백주에 유인립치하는 반인권 범죄를 감행하였다.

동족대결에 이끌려 난 남조선당국의 집단유인립치행위는 국제법에 대한 한폭한 유린으로서 용서받지 못할 반인권적인 범죄행위이다.

남조선당국이 아직까지

도 『자유의사』에 의한 『탈북』이니 뭐니 하면서 저들의 죄과를 덮어보려고 파렴치하게 놀아대는 조건에서 사건의 범죄성, 비법성을 파헤쳐보려고 한다.

### 고의적인 범죄

고 규제하였다.

결국 이 협약의 1조에 따라 모든 사람은 그가 누구든 그 어떤 경우에도 강제실종을 당하지 않을 초보적인 권리가 가지며 그 것은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 인권의 하나로 공인되고 있다.

같은 협약 제2조에서는 『본 규약에서 〈강제실종〉은 국가대리인이나 국가의 위임하여, 지지 혹은 허락을 받은 개인이나 조직의 체포, 구금 랑치 혹은 다른 형태의 자유박탈행위를 가리키며 자유를 박탈한 행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실종자의 운명, 행방을 숨기며 실종자가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제하였다.

이렇게 놓고 보면 제2조에 따르는 강제실종행위는 국가의 권력이 직접 개입되어 강제되거나 목인 및 비호조장에서 강제되는 행위라는데 그 본

남조선 정보원이 사전에 식당지배인을 매수한 사실, 식당앞에 차를 대기시키고 식당녀종업원들을 다른데로 간다고 꼬여서 실어간 사실, 이를이라는 빠른 시일안에 남조선에로의 『입국』이 원만하게 진행된 사실 등은 막강한 권력, 다시말하여 남조선당국이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고 실행시킨 고의적인 유인립치범죄행위라는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남조선언론들과 사회각계에서 4.13 『총선』을 앞두고 강행된 이번 랑치범죄가 불순한 목적을 가진 『정부』에 의해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랑치행위라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 시작인가, 끝인가

공화국주민들을 대상으로 감행되고있는 유인립치범죄들의 특징은 현 남조선당국의 비호조장에 계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범죄라는것이다. 그것은 남조선의 현 집권자가 권리의 자리에 투고았는 이후 그 어느때보다 공화국공민들에 대한 유인립치행위가 우심해지고 있는것을 놓고도 잘 알 수 있다.

그것은 남조선의 현 집권자가 권리의 자리에 투고았는 이후 그 어느때보다 공화국공민들에 대한 유인립치행위가 우심해지고 있는것을 놓고도 잘 알 수 있다.

남조선보수당국은 자연재해를 입은 공화국공민들마저 인도주의원칙에서 돌려보내지 않은채 강제억류하고 있다.

남조선당국은 지난해 7월에 뜻밖의 사고로 표류된 공화국선원들중 3명을 강제억류하고 그들의 행처는 물론 생사조차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번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사람들을 강제실종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대한 선언』 제17조 1항에는 『강제실종행위는 범죄자들이 실종된 사람들의 운명과 행처를 계속 숨기고 있으며 사실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지속되는 범죄로 간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법조항에 밝혀진것처럼 남조선당국은 유인립치한 공화국주민들의 생사여부와 행처를 계속 숨기며 지속적인 죄를 범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있은 다음 날 『자유의사』에 의한 『탈북』이라고 공개하고는 두달이 지난 오늘까지도 공화국주민들의 신상관계와 관련한 모든 내용들을 숨기고있는 남조선당국이다.

범행초기에는 통일부와 적십자사, 국방부와 외교부들을 모두 내세워 공식 론평과 기자회견 등을 벌려놓고 『자유의사』에 따르것이라느니 뛰어나고 법석 떠들어댄 남조선당국이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원천즉시송환과 가족상봉, 피해자가족들의 판문점통과 등 공화국의 강력한 요구에는 침묵하고 있다.

공화국주민들에게 대한 유인립치범죄를 까밝히는 공화국의 정당한 론박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것』이라느니, 『집단탈북은 자유의사에 따른것』이라는 등으로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

을뿐이다. 이뿐 아니라 얼마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의 대면을 위해 유인립치된 공화국

도 『행정조사』, 『신변안전』을 구실로 이를 모두 금지시킨것은 법위반』이라고 항의하고 있다.

### 드러나는 정체, 커지는 범죄

공화국주민들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반인권적인 집단유인립치행위가 벌어진 다음 이를 규탄하고 해명하기 위한 투쟁이 남조선인민들속에서도 힘차게 벌어지고 있다.

이들중에는 남조선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있다.

민변은 1988년 탄생적인 변호사들이 결성한 단체로서 군사파쑈 『정권』 시기 조작된 반공화국모략 사건들과 민주운동탄압사건들의 진상을 파헤치고 막고 있다.

법적으로 실종된 사람들의 신변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행위를 지속적인 범죄로 보는것은 랑치자들의 손에서 실종자들의 신변안전을 위한 그 어떤 담보도 없기때문이다.

남조선당국이 민주단체들의 법정투쟁을 외면하면서 공화국주민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저들의 반인권 행위가 드러나는것을 겁나하기때문이라는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덮을수록 덧쌓여지는것이 바로 남조선당국의 반인권범죄행위이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은 민변의 정당한 활동으로 하여 자기들의 범죄행위가 발각될 위험이 커지자 민변에 대한 탄압을 로끌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남조선당국은 『자유민주국민연대』,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월남도주자들이 들어있는 쓰레기 단체들을 내세워 민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성명』 발표 등을 벌려놓고 『탈북자와 가족들을 위협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횡포무도한 행위』라고 쥐쳐대면서 민변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발하는 추태를 부리였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또 하나의 파쑈적 폭거인 동시에 정의에 대한 탄압이며 국제인권협약에 도전하는 또 하나의 국제법적범죄행위이다.

케변적인 변명이나 진보단체에 대한 탄압으로써 반인권범죄의 주범으로서의 정체를 감출수 없다.

리영희

2006년 12월 20일 유엔

# 친미굴종 《정부》의 최악의 선택

남조선의 친미매국 《정권》이 미국에 추종하여 끌끌내 고고도미싸일방위체계 《싸드》를 경상북도 성주군에 배치하기로 하였다.

오래 전부터 동족의 차위적 핵 억제력을 결고 《위협》이니 《도발》이니 떠들면서 《싸드》를 끌어들이지 못해 안달아하던 박근혜 《정권》이다.

남조선인민들의 규탄과 조선반도주변국들의 눈치를 보며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던 《3NO정책》의 외교를 벗어던지고 이번에 미국의 요구대로 《싸드》를 끌어들이기로 하였지만 거기에서 군사적 무식과 미련함을 보게 된다.

우선 검증도 안된 《싸드》 따위로 공화국의 차위적 핵 억제력을 어찌보겠다는 어리석음이다.

미국도 인정한 것처럼 《싸드》는 아직 미완성 무기체계이다.

미국의 《록키드 마틴》 회사가 1990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싸드》는 2012년에야 최초로 중거리 미싸일 요격에서 《성공》하였다지만 그것도 지상대지상미싸일이 아닌 비행기에서 멀리 공대지미싸일이였다. 그에 대해 미국 방성도 관련 회사에 불만을 표시하였다 한다.

발육부전의 저능아와 같은 《싸드》로 세계가 인정하는 공화국의 차위적 핵 억제력을 막을 수 있겠는가.

지금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화성-10》의

성공적 발사를 보고 공화국의 차위적 핵 억제력이 페이나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경우 완전히 막아낼 수 없다고 아우성이다.

그런데 《싸드》로 어쩐다고?

삶은 소대가리가 웃다 꾸레미 터질 노릇이다.

다음으로 《싸드》가 배치된 지역은 1차적 타격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공화국 총참모부 포병국이 경고한 것처럼 일단 《유사시》라면 공화국 포병대는 모든 침략수단은 물론 대조선 침략의 군사기지, 병참기지들에 1차적 불세례를 안기게 될 것이다.

남조선의 미군기지, 전략기지들은 미싸일이 아니라 장거리 포사격만으로도 재가루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싸드》가 배치된 지역도 응당 선참으로 불바다가 될 것이다.

잡지도 못할 기러기를 쳐다보다 땅별에게 쏘였다고 한탄할 수도 없다.

《싸드》의 배치로 조선반도가 대국들의 대결장으로 되는 것도 간파할 수 없다.

《싸드》는 엄연히 조선반도 주변국들을 겨냥한 무기체계라는 것이 세인의 시각이다.

미국은 《싸드》의 주요 구성 요소인 X대역 레이다를 탐지거리가 1 800km~2 000km인 전진 방식으로가 아니라 탐지거리가 600km~900km인 종말방식으로 설치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의 많은 미싸일 전문가들은 《싸드》

의 운영은 목적에 따라 마음대로 전환 할 수 있다. 고하면서 남조선에 《싸드》가 배치되면 미국은 조선반도만이 아니라 주변국들을 살살이 훑어볼 수 있다고 평하였다.

미국과 박근혜 《정권》의 《싸드》 배치 결정으로 조선반도 주변국들이 촉각을 세우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대국들 간의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면 《싸드》를 겨냥한 국적 불명의 핵 타격 수단이 날아들지 않는다는 담보는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남조선에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외에도 《싸드》를 배치하기 위해 민족의 강토를 또 떼주어야 하는 문제, 기지 건설과 관리에 천문학적 액수의 혈세를 쓸 아부어야 하는 문제, 해마다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의한 막대한 인명 및 생태 환경 피해 문제 등 남조선인민들에게 받게 되는 불행과 고통은 계산하기 어려운 것이다.

민족의 만년대계를 담보하는 동족의 핵 보검을 없애겠다고 승냥이의 손을 빌리는 우매함, 지금 남조선에 도사리고 있는 미군기지도 모자라 또 민족의 강토를 외세에 내맡기는 매국망동, 남조선인민들을 비롯한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되든 외세에 한사코 추종하는 친미 사대 굴종의식이 《싸드》 배치 결정에 어려웠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미국의 《싸드》를 끌어들이는 바탕은 미군기지와 주변국들의 핵 타격 수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12월 맥아더는 《북중 접경 지역에 원자탄 30~50개를 투하할 계획이 있다》고 떠벌인 바 있다. 2012년에 공개된 미련방수사국의 1951년 4월 20일 보고서 《방사능전》에 의하면 미국은 1951년 조선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져들자 플루토니움과 핵 폐기물 등 방사능 물질을 조선반도를 가로지르는 지역에 살포하여 《비인간지대》를 형성함으로써 북과 남으로 걸라져 살지 않으면 안되는 비극적 사태가 빚어지게 되었다.

전후에도 미국은 공화국을 핵으로 공격하기 위해 남조선에 핵무기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이었다. 미국은 1957년 2월 남조선에 핵무기를 배치할 것을 남조선당국과 모의하고 그해 7월 남조선 강점 미군이 《핵 무장화에 착수》 한다는 것을 선언하였으며 1958년 1월에는 남조선 강점 미군부대들에 핵무기가 반입되었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후 미국은 남조선 강점 미제 1군단 지휘부에서 《오네스트 존》을 실물 공개한 데 이어 5월에는 원자포발사기 팀까지 감행하였다.

2010년 10월 미국의 AP통신이 비밀 해제된 미육군 문서를 입수하여 공개한 데 의하면 미국은 조선전쟁을 도발한지 7주 후인 1950년 8월 중순 핵무기를 남조선에 처음으로 배치하였다. 이에 따라 1950년 11월 당시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조선에서 《원자탄 사용을 고려 중》이라고 공식 표명하였으며 미 전략 항공대에 《극동에 즉시적인 원자탄 투하를 위해 폭격기들을 날려보낼 수 있도록 대

의 《싸드》를 끌어들이는 박근혜 《정권》의 망동이 가져오는 후파는 엄중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친미사대, 동족 대결의 일로 줄달 음치는 박근혜 《정권》에 의해 남조선은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에서 안팎으로 사동이 되게 되었다.

이제 《싸드》의 배치로 남조선은 더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 불리는 그대로 남조선인민들에게 재난으로 들씌워질 수 있다.

미국의 가령 이를 불잡고 동족 대결의 어거지를 쓰는 박근혜 《정권》을 그대로 두고서는 어느 한 시도 편 할 수 없다는 것을 《싸드》 배치 문제가 다시금 보여주었다.

신기복

# 《〈싸드〉 배치는 절대로 안된다》

남조선 각계가 규탄

《싸드》 배치 결정은 남조선에서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미국과 남조선 당국은 그 누구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미명 하에 말썽 많은 《싸드》를 끌끌내 경상북도 성주에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들은 집회에서 《인구가 밀집한 민가를 향해 내륙으로 배치하는 《싸드》 헤이타안전을 누가 어떻게 겸증했는지 모르겠다》며 《〈싸드〉를 성주에 배치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하였다.

한편 남조선의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기자회견을 가지고 《〈싸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이 땅은 미국과 일본을 위한 전초기지로 전개되고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조선반도의 전쟁 위험

게 만들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로씨야는 초기부터 그러한 결정이 불가피하게 초래하게 될 위험한 후파에 대해 경고하였다고 하면서 성명은 미국이 전지구적인 미싸일 방위체계의 아시아 태평양 구성을 계속 강화함으로써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그 경외에서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성명은 동북아시아 지역과 그 경외에서 비극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후파를 가져올 수 있는 경술한 행동을 경고하였다.

본사기자

# 《싸드》 배치를 강력히 반대하여

## 중국 외교부와 로씨야 외무성

## 성명 발표

중국 외교부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고고도미싸일 방위체계 《싸드》 배치를 반대하여 8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국과 남조선이 중국 측을 포함한 관련국들의 명확한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에 《싸드》를 배치하기로 한 대 대해 언급하고 이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리롭지 않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각측의 노력에 배치된

성명은 미국과 남조선이 《싸드》 배치 과정을 중지하고 지역 정세를 복잡하게 만드는 행동을 취하지 말며 중국의 전략적 안전리익에 손해를 주는

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중국을 포함한 해당 지역 나라들의 전략적 안전리익과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엄중히 해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이를 견결히 반대한다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성명은 미국과 남조선이 《싸드》 배치 과정을 중지하고 지역 정세를 복잡하게 만드는 행동을 취하지 말며 중국의 전략적 안전리익에 손해를 주는

다고 지적하였다.

로씨야 외무성이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고고도미싸일 방위체계 《싸드》 배치를 반대하여 8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국의 《싸드》 배비가 그 어떤 론거로도 통할 수 없으며 세계의 전략적 안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주는 것은 물론 지역에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고 조선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복잡한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

남조선 상공에 핵 전략 폭격기 《B-52》를 끌어민데 이어 3월 28일에는 혁사상 처음으로 미국 본토 미주리주 와이트 맨 공군기지에 있는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A》를 진입 시켜 지상 목표 타격 훈련을 벌려놓았다. 런던이 3월 31일에도 《F-22》 스텔스 전투기를 남조선의 오산 공군기지에 전개하고 북침 핵 전쟁 연습에 광분하였다.

오늘 핵 전략 폭격기들과 핵 항공모함을 비롯한 미국의 《3대 전략 핵 타격 수단》들이 임의의 시각에 아무 거리낌 없이 남조선에 기여하고 있는 사실은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핵 전쟁의 불길을 터뜨려보려고 얼마나 발광하고 있는가를 뛰어 넘었다.

사실들이 이러한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 무슨 《북핵 위협》과 《북미 핵화》를 떠드는 것은 핵 전범자로서의 추악한 정체를 가리우고 공화국의 핵 포기를 이루어 보려는 어리석은 흥계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의 핵 무기�이 말로 세계의 평화와 우리 민족의 안전을 해치는 암적 존재인 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 가증되는 미국의 핵 위협



기》 할 때 대한 지령을 하달하였다.

그해 12월 맥아더는 《북중 접경 지역에 원자탄 30~50개를 투하할 계획이 있다》고 떠벌인 바 있다. 2012년에 공개된 미련방수사국의 1951년 4월 20일 보고서 《방사능전》에 의하면 미국은 1951년 조선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져들자 플루토니움과 핵 폐기물 등 방사

능 물질을 조선반도를 가로지르는 지역에 살포하여 《비인간지대》를 형성함으로써 북과 남으로 걸라져 살지 않으면 안되는 비극적 사태가 빚어지게 되었다.

전후에도 미국은 공화국을 핵으로 공격하기 위해 남조선에 핵무기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이었다. 미국은 1957년 2월 남조선에 핵무기를 배치할 것을 남조선 당국과 모의하고 그해 7월 남조선 강점 미군이 《핵 무장화에 착수》 한다는 것을 선언하였으며 1958년 1월에는 남조선 강점 미군부대들에 핵무기가 반입되었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후 미국은 남조선 강점 미군부대에 배치되었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하였다.

쟁시기 미공군의 《B-29》 전략 폭격기들이 평양 상공에서 핵 폭탄 투하를 위한 시험비행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내외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냈다. 미국의 이러한 핵 폭격을 통으로 조선반도에서 수많은 가족들이 수십년 동안이나 북과 남으로 갈라져 살지 않으면 안되는 비극적 사태가 빚어지게 되었다.

미국은 1957년 2월 남조선에 핵무기를 배치할 것을 남조선 당국과 모의하고 그해 7월 남조선 강점 미군이 《핵 무장화에 착수》 한다는 것을 선언하였으며 1958년 1월에는 남조선 강점 미군부대들에 핵무기가 반입되었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후 미국은 남조선 강점 미군부대에 배치되었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하였다.

미국은 1957년 2월 남조선에 핵무기를 배치할 것을 남조선 당국과 모의하고 그해 7월 남조선 강점 미군이 《핵 무장화에 착수》 한다는 것을 선언하였으며 1958년 1월에는 남조선 강점 미군부대에 배치되었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후 미국은 남조선 강점 미군부대에 배치되었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하였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기지화 정책은 그 후 더욱 로끌화되고 끊임없이 보강 완비되었으며 이에 따라 핵 폭탄과 핵 지뢰, 핵 미사일 등 각종 핵 무기들이 남조선에 대량적으로 쓰여들게 되었다.

1950년 대말 미국은 미공군 588 전술 유도탄 대대를 남조선에 끌어들이고 미군 제4 유도탄 사령부를 조작하였으며 1960년 대에는 원자사단을 보다 현대적으로 개편하고 《나이크 허큘레스》, 《호크》 유도탄을 비롯하여 각종 원자 및 유도 무기들을 반입하였다. 1970년 대에는 8인 폰사포 용 핵 포탄, 《서전트》를 비롯한 각종 핵 탄두, 《랜스》 미사일, 핵 탑재 용 전투 폭격기를 비롯한 핵 운반 수단들을 실전 배치하였다.

1980년 대에는 그 어느 해외 군사 기지에도 배비 한적이 없는 155mm 폰사포 용 핵 포탄을 남조선 강점 미군부대에 배비하였으며 지어 《20세기 악마의 무기》로 불리우는 중성자 탄과 《페싱 2》 중거리 핵 미사

일을 남조선에 반입하였다. 미국이 이렇게 끌어들인 핵 무기의 수는 1970년 대에는 1 000여 개, 1990년 대에는 1 720개를 넘어섰다. 하여 남조선은 세계 최대의 핵화약고, 미국의 핵 전초기지로 전변되게 되었다.

그런데 미국은 핵 무기의 존재에 대해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NCND 정책》을 표방하면서 남조선에 대한 핵 무기 반입을 계속하는 한편 공화국에 대한 핵 위협과 공갈의 도수를 체계적으로 높여왔다.

미국은 남조선과 그 주변에 공화국을 핵 선제 공격하기 위한 북침 핵 전쟁 연습들과 핵 타격 훈련들을 매일이다 실시하고 있다. 해마다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키리졸브》, 《독수리》, 《울지 프리덤 가디언》과 같은 합동 군사 연습들이 핵 선제 공격 계획에 따른 북침 핵 전쟁 연습들이라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2013년에만 하여도 미국은 그해 초

『찍히면 죽는다』는 남조선영화의 제목이라고 한다.

이 말은 집권자 박근혜의 통치수법을 특징짓는 말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것이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였던 류승민의 강제사퇴라고 할 수 있다.

류승민은 지난 『대선』 시기 박근혜의 당 선을 위해 뛰여다닌 『심복중의 심복』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그가 야당과 협력하여 『국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여 『배신자』로 박근혜의 눈에 찍혔고 결국은 20대 『총선』을 계기로 『새누리당』에서 쫓겨났다. 얼마전에 다시 『새누리당』에 들어왔지만 원내대표시절의 기는 짹 죽어 허울만 남은 상태로 말이다. 류승민의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때 박근혜는 조화도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무성도 류승민과 함께 『국회법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한몫』 한것으로 하여 박근혜의 눈에 찍혔고 악수는 고사하고 눈인사도 나누지 못하다가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패배와 함께 『동반사회론』에 휘말려 대표직에서 물러나았게 되었다.

박근혜의 통치아래서 자그마한 자리라도 부지하려면 입은 적에 벌려야 하고 눈은 항상 땅에 박아

야 하며 손발은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조금이라도 엇서다간 영구없이 박근혜의 눈에 찍힌다고 한다.

항간에서는 자기의 심기를 건드리는 상대방을 쏘아보는 박근혜의 차갑고 매서운 눈길에 대해 『눈에서 레이자가 나오는 것 같다.』는 소리가 떠돈다.

빛으로 쳐다볼 때는 정말 어디다 눈을 뉘야 할지 모르겠더라.』 라며 혀를 내둘렀다.

썩 이전인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위한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의 경선시기 박근혜의 옆에서 나돌던 인물은 『박후보를 해석하는 코드는 『역린』이다. 역린

와대에 들어가면 땅바닥에 납작 엎드리니 땅대표이다. 박근혜 『대통령』 이드디어 신이 되었다.』 고 할 정도로 집권층내부에서는 박근혜의 눈에 찍히지 않으려고 굽신거린다.

박근혜의 통치밑에서는 『친박원로』인 김기준이나 제스스로 『청와대의 내시』라고 한 히정현처럼 『복종형』, 『굴종형』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 통일부 장관 류길재처럼 『핫바지』로 불리우다 내쫓기는 일쑤다. 살아남은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일찌감치 자진사퇴하는 것이다.

2013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이 그랬고 2004년부터 박근혜의 연설문을 전문으로 써온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 최근에 사퇴한 것이 더욱 실감있다.

박근혜의 눈에 찍힐까봐 조마조마한 가슴을 부여잡고 사느니 『자진사퇴』 형식으로 『명예』를 지키자는 것이다.

이미 박근혜는 명을 다한 독재자다.

『박근혜퇴진』은 남조선인들의 의지이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박근혜탈당론』이 나오는 정도이다.

하지만 독사는 죽는 순간까지 독을 뿐이라고 박근혜의 독기는 단말마적인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 이제 또 누가 언제 『찍히면 죽는다.』의 주인공이 될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치마두른 『제왕』에게 찍혀 죽느니 차라리 삼십륙계 출행랑이 제일이라는 말이 나오는 남조선이다.

박희철

## 《찍히면 죽는다》

을 건드리면 그날로 아웃(out)이라고 하였다.

『역린』이란 통의 턱 아래에 난 비늘을 다치면 통이 크게 노란다는 전설에서 생겨난 말인데 『임금의 분노』를 달리 부르는 말이다.

보는바와 같이 박근혜는 오래전부터 자신을 집권자의 위치에 세워놓고 아래들을 다스리고 다불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근혜의 자기파신, 독재기질은 권력을 좌자마다 즉시에 자기 모습을 드러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때는 『인사』 문제에서 『주변말을 잘 안듣는다.』 말하면 레이자가 나오는 것이다. 『청와대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검찰총장도 발가벗겨져 쫓겨난다.』는 소리가 나돌았다.

그래서 박근혜의 『인사정책』을 『나홀로 인사』, 『불통인사』, 『밀봉인사』라고 하였다.

『새누리당』 대표는 땅대표이다. 당대표도 청

야 암울한 땅에 『만평 개, 돼지 눈에 놀라워나는 폭언을 내뱉었다.

이것은 평화에 대한 민족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조선반도의 전쟁위험을 더욱 증대시키려는 호전파들의 고의적인 도발행위가 아닐 수 없다.

지금 공화국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긴장국면을 해소하고 평화통일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

별인사들의 협력 회의를 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고 있다.

최근 군부호전 광들은 공화국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분계선 최전방 지역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 시설을 넘달까지 현 재보다 2배 가까이 늘일 계획』이라고 떠들면서 그 일환으로 『대북 확성기』를 10여개 추가 설치하겠다고 분주장을 펴우고 있다.

이와 함께 얼마 전에는 해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이라는 자가 서해 최전방 지역에 나타나 『군사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느니, 『도발에 처절하고 단호하게 응징』 해야 한다는 화약연을 내뱉었다.

이것은 평화에 대한 민족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조선반도의 전쟁위험을 더욱 증대시키려는 호전파들의 고의적인 도발행위가 아닐 수 없다.

지금 공화국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긴장국면을 해소하고 평화통일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

전쟁광신자들의 호전적 광기는 이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달부터 남조선호전광들은 미군과 암합하여 공화국의 주요시설들을 기습타격하는 연합훈련을 진행하였다.

구름이 짙어지면 비가 오기 마련이다.

최근에 와서 그 어느 때보다 실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격적인 침략 전쟁훈련이 언제 실전으로 넘어가겠는지 장담하기 어렵다.

현실은 남조선당국이 야말로 동족에 대한 국도의 대결망상에 사로잡혀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기어이 불을 달려고 날뛰는 대결광신자들이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하지만 도발자, 호전광들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분별없이 날뛰다가는 제가 놓은 불에 제가 타죽게 된다는 것을.

본사기자 황진옥

## 해외동포사회에 뻗친 추악한 마수 (1)

엎어진 둑지에 성한 알이 없듯이 과거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우리 민족은 마을을 농업처럼 세계 각지로 흘어지기도 하였다.

그렇게 조국을 떠나간 동포들과 그 후손들이 해외동포사회를 이루게 되었다.

그들에게 조국은 어디인가?

외세에 의하여 분열된 조국의 현실은 해외동포들의 가슴에도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다.

하지만 남조선의 박근혜 『정권』은 민족의 통일을 바라는 해외동포들을 저들의 불순한 목적에 악용하기 위해 추악한 마수를 뺏고 있다.

\* \* \*

남조선집권자 박근혜는 해외에 나가면 동포들을 만나는 것을 『전례』처럼 여기며 『간담회』니, 『모임』이니 하는 것들을 조직하곤 한다.

하지만 거기에는 자기 딸의 검은 흥심이 숨겨져 있다.

그가 해외동포들앞에서 웨친 발언들을 다시 들어보자.

『동포사회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드레즈דן선언』을 적극 지원해달라.』, 『북이 핵개발을 포기할수밖에 없는 그런 국제적 환경을 만들어달라.』, 『동포여

러분이 국제사회가 우리의 『대북정책』과 통일 노력을 더욱 강력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성원해달라.』 …

동족의 자위적 억제력에 대한 악담이고 자기들의 범죄적인 동족대결정책을 지지해달라는 구걸이다.

세상에 나오기 바쁘게 『흡수통일 모략문서』, 『실망프로세스』로 락인 받은 『대북정책』을 아직도 해외에 들고다니는 박근혜의 뱀뱀스러움도 그렇지만 해외동포들을 저들의 동족압살 기도를 실현하는데 리용해보려는 추악한 심보는 더욱 가증스러운 것이다.

민족의 망신인 줄 모르고 돌아다니며 그 누구의 『인권』 문제를 고아대는 것은 또 얼마나 풀불견인가.

최근에도 남조선집권자는 미국과 유럽 행각시 『북의 인권 상황이 우려스럽다.』느니, 『북의 핵개발과 인권 문제는 국제 사회의 위협요인』이라느니, 『북인권 개선』이니 하는 망발들을 늘어놓았다.

『세월』 호 참사를 비롯하여 남조선을 최악의 인권 불보지로 만든 박근혜가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윤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박근혜가 아무리 터무니

없는 『인권』 문제를 떠들어대도 해외동포들은 인민 사랑, 청년종시, 미래 사랑이 꽂혀나고 있는 인권천국인 공화국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오히려 올해 공화국의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집단 탐치 사건을 통해 반인권, 반인륜의 악한

이름 아닌 박근혜라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알게 되었다.

보는 것처럼 시커먼 속음을 간사한 웃음과 화려한 웃자림으로 감싼 박근혜의 입이 벌어질 때마다 대결 악당이 똑똑히 떨어지고 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민족분열의 상처를 헤집는 갈퀴질이 이루어진다.

그때문에 북남사이의 화해와 민족통일의 길은 점점 더 멀어지고.

박근혜의 속심은 해외동포들 속에 자기의 대결정책에 대한 선전과 공화국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유포시켜 그들을 동족대결정책의 동조자로 만들자는 것이다.

하지만 해외동포들의 반응은 랭담하고 정확하다.

『재외동포는 『한국정부』가 정한 정책을 수행하는 역할만 하는 2등국민이 아니다.』, 『조선반도의 통일은 『흡수합방』이 아닌 남북화합이 정답이다.』, 『〈흡수통



## 인권지옥에서 울리는 소리

### 《우린 죽음을 실습합니다》

5월 28일 서울메트로(지하철도) 2호선 구의역에서 김모(19살) 군이 사망했다. 이 사고가 보도되자 여론은 들끓었다. 숨진 김군의 가방에서 나오는 컵라면은 세인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안전장치 하나 없이 끼니를 먹어야며 일 하던 김군은 끝내 『정규직』이라는 꿈을 이루지 못한채 『현장실습생』으로 생을 마감했다. …

현재 산업현장에 나가 있는 실습생은 대부분 현장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일을 강요받는 반면 휴식이나 근무시간리행측면에서는 제대로 된 권리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일부 업체는 현장실습생들이 『근로기준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이들이 감당하기 힘든 위험한 현장에까지 투입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동안 현장실습생을 위한 제대로 된 법안을 내

놓지 않고 있다. …

열악한 환경에 놓인 현장실습생은 비단 김군만이 아니다. 2011년부터 거의 매년 현장실습생이 실습장소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5월 7일에는 실습나간 기업현장에서 파도한 로동시간과 직장내 피롭힘에 지친 한 실습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2011년 12월에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 김민재(18살) 군이 공장기숙사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원인은 뇌출혈,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김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문길주 금속로동조합 로동안전보건실장에 따르면 당시 김군이 근무하던 도장공장은 과거로 동자 3명이 백혈병에 걸린 적이 있는 곳이다. 김군의 뇌출혈사고가 있은지 1년 후인 2012년

12월 울산에선 한라건설 해상크레인 작업선이 전복돼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 1명은 현장 실습생 홍성대(19살) 군이었다. … 김군은 출근 첫 날부터 숨진채 발견된 날 까지 단 하루도 11시간미만으로 일한 적이 없었다. 오전 11시 출근해야 하지만 『별직』이라는 명목으로 거의 매일 2시간 일찍 출근했고 빠른 날은 오전 7시 30분까지 출근하기도 했다. 김군의 평균 수면시간은 5시간 남짓에 불과했다. 높은 강도의 로동과 적은 수면 시간탓에 김군은 입사 후 4개월만에 몸무게가 10kg이나 줄었다. 견디다 못한 김군은 사망하던 날 상사에게 퇴사의사를 밝혔고 그날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남조선잡지 『주간동아』 2016년 7월 6일호에서 전재)

호평받은 경례를, 영광을

## 민족의 전통주 단군술

지난해 10월 3일 단군릉에서 진행된 개천절 행사에는 단군술이 올라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국화 목란꽃, 국수 소나무와 함께 단군릉이 형상된 52cm의 높이로 된 고려청자기 술병, 짐장생도가 그려진 전복자개박이 술포장공예함은 민족적 정서가 진하게 풍겼다.

제례가 끝난 후 단군술을 맛본 사람들은 더욱 놀랐다. 등황빛의 곱고 맑은 빛깔, 깊고 은은하게 달고 향기로운 술맛, 고요하면서도 내면의 깊이가 느껴지는 호수를 대하는 것 같다 할가. 좋은 술은 술맛과 향기가 우선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원료조성과 술제조비법을 기묘하게 적용한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한껏 느껴지는 술이었다.

누구나 단군술을 맛보고는 엄지손가락을 내흔든다.

술 하나에도 한 고장의 풍토가 비끼고 한 나라의 문화가 비끼며 한 민족의 삶이 비낀다. 조선민족에게도 우리 나라의 풍토가 비끼 있고 우리 민족의 문화와 삶이 비끼 있는 옛 명주가 있으니 바로 단군술이다.

우리 민족의 원시조 단군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단군술!

단군술은 동방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이끌어온 단군의 높은 명망처럼 그 맛도 매우 좋았다.

단군술은 평양의 단군릉과



충령전, 구월산의 삼성사, 묘향산의 단군사에서 단군제사 때 쓰이던 했다. 우리 선조들은 단군술을 마시면서 이 술은 그저 술이 아니라 금술이라고 탄복해 마지 않으면서 단군민족의 궁지와 자부심을 더욱 절감하게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고려와 조선봉건왕조시기까지 전해졌던 단군술은 단군말살책동이 국도에 달했던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고 차츰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

단군술은 평양의 모란봉 주암산기슭에서 감홍로, 문배술, 계당술을 비롯한 술들을 만들며 대대로 양주업을 해온 정씨 일가가 옛 비법대로 아달샘물을 가져다가 제조하여 3년 이상 숙였다가 개천절 단군제사 때 보장하군 하였다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 전 정씨일가에게서 단군술제조비법을 전해들은 평양시 락랑구역에 살고 있는 김원범, 황경숙부부는 비록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우리 민족의 원시조인 단군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이 술을 우리 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술로 완성하기 위하여 펴타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 과정에는 애로와 난관이 적지 않았지만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신화속의 단군을 민족의 원시조로 찾아주시여 반만년의 민족사와 단일화통의 시원을 밝히시고 평양을 민족의 성지로 사랑멸쳐주신 전무후무한 그 현신과 로고에 무한히 감동되고 고무되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으며 끝내 전통적인 단군술제조비법과 술제조기술을 배합하여 단군술양조기술을 완성하였다.

이제는 인생의 황혼기라 할 수 있는 70대 나이인 김원범, 황경숙부부는 《세계를 둘러보면 우리 민족처럼 오랜 역사가 가진 단일민족이 그 어디에 있습니까? 북과 남, 해외의 온겨레가 단군술을 함께 들여 단군자손 하나될 그날만을 바라며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고 말하였다.

좋은 소주와 대추, 방풍을 비롯한 고려약재들을 가지고 예로부터 전해내려오는 독특한 술제조비법으로 만들어지는 단군술은 인체에 미치는 부정적 후파를 해소시키고 장수불로 하게 하는 약효를 가지고 있어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술이다.

여러 나라의 술전문가들은 단군술을 마셔본 후 세계적인 명주들과 대비하면서 탄복과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국가과학원 중앙실험분석소에서 단군술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도 세계적인 명주들보다 훨씬 앞섰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단군술은 술독을 풀어주는 약리작용과 청혈, 강심, 장장, 동맥경화, 정력이 넘쳐나게 하는데 좋은 약효성분들이 조화롭게 다량 들어있어 과음으로 심장이 나빠져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도 단군술은 아무런 심장의 고통도, 부담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자고로 명주가 나는 곳은 물이 좋은 곳이고 물이 좋은 산 좋기마련이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금수강산인 우리나라의 물과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어려있는 단군술, 그 은은한 향속에서 사람들은 선조들의 숨결을 느끼고 강렬한 민족적 자부심을 느낀다.

지난 5월 4일 단군술양조기와 술제조기술을 배합하여 단군술양조기술을 완성하였다.

본사기자 김춘경

조선춤은 팔놀림을 기본으로 하면서 둘동이 우아하고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아시아 사람들의 춤은 상체를 많이 쓰는 반면에 하체를 적게 쓰며 유럽 사람들의 춤은 하체를 많이 쓰는데 비하여 상체를 적게 쓴다.

그런데 조선춤은

은 팔놀림을 기본으로 하면서 거기에 다리동작을 자연스럽게 결합하여 상, 하체가 조화롭게 움직이게 한다.

뿐만 아니라 조선춤에는 과격하고 틀에 배긴 동작이나 자세보다는 부드럽고 힘 있으며 움직이는 정도가 알맞춤한 동작과 자세가 기본으로 되어 있다.

조선춤에서는 크고 작은 동작이 잘 배합되고 하나의 팔동작을 해도 둘동이 어깨로부터 손끝까지 흐르며 조형적인 몸가짐과 움직임의 자리길도 주로 곡선을 취함으로써 둘동이 우아하고 부드러우며 섬세한 멋을 가진다.

조선춤은 서정성이 풍만한 특징도 가진다. 이러한 특징은 춤의 속도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조선춤은 안착된 속도와 유순한 흐름을 가지면서 끈기 있고 출렁이는 듯한 다리굴신과 함께 뿌리치거나 휘감는 다양한 놀림으로 공간에 우아하고 부드러운 흔선을 그어나간다.

이와 같이 조선춤은 자기의 고유하고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여 부드럽고 섬세한 흐름속에서 약동하는 기백을 표현할 수 있고 힘 있고 박력 있는 흐름속에서 섬세하고 유순한

정서를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은 조선춤이 그 어느 나라 춤보다도 다양하고 풍부한 형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조선무용기동맹 중앙위원회 서기장 홍정화



## 우리 민족의 전통화장품

우리 나라에서 여성들이 화장품을 이용한 혁사는 매우 오래다. 고대의 여러 유적들에서 화장도구인 청동거울과 청동화장품통이 나오고 분가루와 같은 화장품이 발굴된 사실은 이미 이 시기 여성들이 여러 가지 화장품들을 사용하여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나라시기에 이르러 더욱 높아진 여성들의 미적요구는 화장품의 발전을 동반하였으며 이에 따라 화장제조기술이 발달하고 화장품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이 시기 화장품으로서는 분, 연지, 눈썹, 머리기름, 향료 등이 있었다. 당시 여성들이 허용한 분으로는 천연물질을 주성분으로 하여 만든 분파

식물재료에 일종의 물질을 열처리하여 섞어 만든 연분이 있었다. 연지로서는 어느 한 천연물질을 주성분으로 하여 만든 것과 잇꽃으로 만든 것과 있었다.

당시에는 식물성재료로 만든 분이 많이 쓰이었으며 지방적 특성과 신분에 따라 조개껍질이나 진주를 가루내여 만든 분도 쓰이였다.

연지 역시 잇꽃으로 만든 것을 더 애용하였다. 눈썹의 재료로서 제일 고급한 것은 소나무순을 태워 얻은 그을음에 유채씨기름을 섞어 만든 것이었으며 배꽃, 소나무잎 등을 리용하기도 하였다.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연구사 정미향

### 단편소설

## 볼을 부르는 소리 (7)

글 오송심, 그림 김윤일

집에 돌아와 컴퓨터에 마주앉은 림하영은 망자료들을 파고들었다. 위선의 국치일 따름이라고 결론짓고 외면해온 정치를 최대의 관심사로 받아들였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간에 맹렬히 진행되는 여론몰이는 림하영을 격분케 하였다. 아픈 과거를 안고 있는 박근혜에게 험담을 들씌우는 반대파들이 그지없이 미웠다. 진보라면 마땅히 국민생활의 진보를 위한 방책을 내놓아야 할 게 아닌가. 뜬소리나 늘어놓고 뒤자락을 잡아당기는 나부랭이들에게 서로 한 여성의 몸으로 맞서 나선 박근혜가 자못 돋보였다.

그래도 어린 아들에 한 헤나마 의지 할 수 있는 자신파는 대비조차 할 수 없으리만큼 생활적으로 몸시 외로울 후보, 유난스럽게 꼭절 많은 인생행로를 헤쳐와서 그런지 동정심이 각별하고 정찬 말도 스스로 없이 진네는 그에게 쓸리는 자신을 제어할

수 없었다. 행당의 면사포를 쓰고 살아온 자신과 《열음공주》라는 서글픈 혹평에 시달리는 그가 별스레 일맥상통해보였다. 림하영은 끔 가엾었다.

한편 박근혜를 칭하는 색 다른 부름에 흐뭇하였다. 《준비된 너 성대통령》! 외울수록 귀에 속 배기고 마음에 친근하게 안겨드는 부름이었다. 《대통령》 선거라는 최고의 격전에 나선 박근혜, 그는 너성후보자이다. 인구의 반수이상인 너인들, 정의 명예를 떠내고 바등바등 애를 쓰는 우리네의 하소연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있고 그 고충을 풀어줄 방책이 준비되어 있는 너성정치가!

누구보다 먼저 웃는녀인들의 아픔을 웃음으로 달래주려 마음쓰는 저 박근혜야말로 적임자가 아닐가. 동병상련이라고 너인이 고뇌와 슬픔과 정을 너인이 아니고서야 어찌 다해아리랴. 이런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그 렇게만 된다면… 희망의 봄물결이 늘실

늘실 굽닐며 가슴팍을 쫒아내고 살아온 자신과

그래, 그의 당선만이 수난사에 종지부를 찍을 래일을 안아올 것이다. 오직 그만이 생활에 시달리고 수난에 신음하고 온갖 사회적 불평등에 서러워하는 이 땅의 너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으며 이 땅의 어머니들이 자나깨나 바라고바라던 세상, 진정으로 행복한 세상을 열어놓으리라…

림하영은 이런 확신이 생겼다. 일단 결심을 굳히면 행동에서 주저하는 것을 모르는 림하영이었다. 밤새껏 컴퓨터 건반을 두들겨 박근혜의 당선이 이 땅에 가져올 래일을 격찬하는 글을 써서 맘에 올렸다. 시장에서 박근혜를 벗어나 사방에 림하영을 잊지 않고 불러주었다.

당 열명 이상의 지지자를 팀!

얻어내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행동에서 열화로 돌변

하였다.

『화이팅!』이라는 이 말이 여름날 마른 목보다 타는 속을 먼저 적셔주는 물소리처럼 그렇듯 반가움과 상쾌하고 귀엽잖게 허온 말이다. 잘 싸우고 가는 밀기름(밀립파) 기름을 섞어 만든것과 동백기름을 많이 썼으며 이것으로 머리를 항상 아름답고 탐스럽게 단장하였다.

이 시기 화장품으로서는 분, 연지, 눈썹, 머리기름, 향료 등이 있었다. 당시 여성들이 허용한 분으로는 천연물질을 주성분으로 하여 만든 분파

인데 이다지 느낌이 다를 렸다.

수가는 박근혜를 대할 적마다 그가 늘 꼽씹는 『화이팅!』이라는 이 말이 여름날 마른 목보다 타는 속을 먼저 적셔주는 물소리처럼 그렇듯 반가움과 상쾌하고 귀엽잖게 허온 말이다. 잘 싸우고 가는 밀기름(밀립파) 기름을 섞어 만든것과 동백기름을 많이 썼으며 이것으로 머리를 항상 아름답고 탐스럽게 단장하였다.

고려시기에 와서 화장품을 전문생산하는 수공업자들이 생겨나고 혼기를 맞는 처녀가 있는 집의 마당에 연지의 재료인

푸르른 에잎들이 한들대는 밖은 엄연히 봄이었건만 진도체육관은 속수무책의 기다림속에 펴가 얼어들고 심장이 파다드는 한겨울이었다.

실종자가족들로 불리여 서인가. 너령청한 체육관 안의 공기가 허박하게 만느껴졌다. 림하영은 숨막히는 긴장과 초조감으로 모대기며 벌써 몇 시간째 손전화기에 매달려 있었다.

(왜 응답이 없을까? 그럼 통보문이라도…)

림하영은 부지런히 손가락을 놀렸다.

— 각하, 배 좀 건져줘요. 애들이 죽어가요. 진도에서, 림하영.

다급한 마음에 자꾸 헛짚으며 겨우 몇자 써넣은 통보문이 날아갔다. 역시 대답은 없었다.

림하영은 속이 답답해졌다. 숨길이 막혀들어 헉헉하며 목깃을 쥐여뜯었다.

(예가 어딘가? 난 대체 어데 있는거야?!)

수천수만리밖파의 소통도 가능한 첨단의 시대에 림하영은 고립무원한 무인도에 버려진 것 같아 겁이 났다. 기타려도 기타려도 통소식이 없었다.

